

더불어
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
장애인시민본부 보도자료
(본부장: 서미화 의원)

보도일시	2025. 5. 30.(금)	담 당 자	노혜담 선임비서관 (02-784-6441)
배포일시	배포 즉시		

각계 장애인·시민단체 이재명 후보 막바지 총력 지지선언!

서미화 본부장, “장애인 인권참사 재발 방지 위한 정책과제 시급 …
사회적 약자 삶 지키는 정책 발굴 위해 노력할 것”

- 각계 장애인·시민단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과 정책협약이 막바지 총력전으로 이어지고 있다.
-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오늘(30일) 오후 2시,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 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(본부장 서미화)와 정책협약을 맺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.
- 정책협약서에는 ▲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내실화, ▲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노력, ▲장애인 경제적 자립생활 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. 이어 진형식 연합회장은 “장애인의 아픔에 가장 잘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”고 밝혔다.
- 이어 태연재활원 공동대책위원회의 정책제안이 진행됐다. 태연재활원은 울산시 소재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로 지난해 20여 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 발달장애인 29명을 학대한 초대형 장애인 인권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. 이번 참사로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중이다.
- 태연재활원 공동대책위원회는 ▲태연재활원 운영 주체 이관, ▲대규모 시설에서 30인 이하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분리 운영, ▲피해자 지역사회 자립생활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.

- 이어 <스포츠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장애인 체육인>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. 장애인 체육인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“장애인 체육의 질적 도약과 장애인,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사회 실현을 앞당길 후보는 이재명”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.
-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의 정책제안에서는 ‘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’을 위한 정책과제로 ▲장애인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, ▲권리기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강화, ▲탈시설 권리 실현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.
- 서미화 본부장은 “다시는 태연재활원과 같은 인권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진전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”면서 “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전국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‘진짜 대한민국’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.
//끝//

[붙임1]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현장사진

[붙임2] 태연재활원 공동대책위원회 정책제안식 현장사진

[붙임3] 스포츠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장애인 체육인 지지선언 현장사진

[붙임4]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제안식 현장사진

[붙임1]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현장사진



[붙임2] 태연재활원 공동대책위원회 정책제안식 현장사진



[붙임3] 스포츠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장애인 체육인 지지선언 현장사진



[붙임4]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제안식 현장사진

